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관후기

작성자: 박지현 (우수)

협력과 공존을 통한 팬데믹 극복

세계 모두 팬데믹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만큼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자협력이 중요 시되는 만큼 무작정 협력을 강요하기보다는 신뢰를 통한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자협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 간 및 나라 간의 협력을 더 잘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신뢰와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느꼈다. 대중과 미디어, 기업, 그리고 나라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아직 충분한 신뢰 및 협력의 경험이 없는 국가들과도 다자협력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또는 경제적 제재로 인한 강제력이 아닌 나라의 문화, 정신적 가치 및 대외정책과 같은 소프트 파워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보여준, K-방역으로 대표되는 공중 보건의 체계성과 분별 있는 시민의식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또한, 방탄소년단 및 기생충과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갖는 힘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작은 국가지만 문화적 힘이 강하다. 특히 콘텐츠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대면 접촉이 금기시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퍼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젊은 세대가 세계적 한국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원희룡 지사님의 말을 듣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나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토머스 프리드먼 연사가 팬데믹을 진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 대자연(Mother Nature)은 어떤 집단이 가장 생존에 적합한지 보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인류에게 준다고 한다. 나라 차원에서 이 역경을 해결할 때 대자연은 누가 가장 똑똑한지, 가장 힘이 센지 보는 것이 아닌,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집단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프리드먼 연사는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적응 전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는, 바이러스를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팬데믹 사태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점이다.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권고된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지침들을 잘 따르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팬데믹에 대한 집단 대응 능력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하였는가에 대한 점이다. 정확한 동선 파악과 체계적인 공중 보건 및 의료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화학, 생물학, 물리학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는가에 대한 점이다. 기초과학을 토대로, 여러 나라에서 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은 물론 혼란스러운 팬데믹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공학 및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언택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제주포럼에서 다양한 물리적 공간에 있는 세계 지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Zoom을 통해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참관하며 이를 가능하게 한 혁신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팬데믹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이를 활용해 팬데믹을 잘 극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으로 생각했다.

포럼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의 트럼프는 대자연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코로나를 두려워 말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은 매우 심각한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트럼프 또한 확진이 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도 비슷한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인류가 대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구에 대한 과도한

인위적 지배력을 행사하자 각종 생태계적 문제가 우후죽순 발생하며 인류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행동주의 철학자인 <엔트로피>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코로나 19의 근본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며 인간 곁으로 왔고, 야생 동물이 바이러스의 중간 매개체가 되었다고 한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몇 년 동안 에볼라,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팬데믹이 계속 발생한 이유이다.

따라서 앞으로 팬데믹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환경과 공존하는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앞서 언급되었던 “Mother Nature”(대자연)는 나에게 설문대할망, 영등할망 등의 제주의 할망신들을 떠오르게 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만큼 나는 제주에 대한 애착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에 잇따른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제주의 진정한 특색인 아름다운 자연을 잃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내가 사는 제주와 연결해서도 생각해 보며, 단순히 제주를 무조건 개발하기보다는 청정 제주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며, 단순한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

즉,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째로는 사회 구성원 및 나라 간의 협력이고, 둘째로는 환경과의 공존이다. 철저한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안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팬데믹 대응책이 필요하다. 팬데믹이 왔을 때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두 타격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채 환경과 공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 사회 구성원, 국가 그리고 동식물 및 자연환경,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네트워크처럼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주포럼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제주포럼의 취지와 부합하는 협력과 공존의 중요성을 배우며 나 자신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이 가치들을 실천해야겠다고 느꼈다.